

2005년 9월 6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5. 9. 1 배포
▶ 총 25 쪽

보 도 자 료

- ▶ 장애인고용과 이은영 사무관
T E L : 2110-7085
E-MAIL : epd04@hanmail.net
FAX : 507-6944
- ▶ 대외협력실장 황 보 익
TEL : 031-728-7026
E-mail : boikh@kepad.or.kr
FAX : 031-728-7037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의 달(9월)’을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장애인고용 관련 다채로운 행사 열려

- 최인재씨 석탑산업훈장 등 장애인고용촉진유공자 27명 수상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고용관련 국제 심포지움, 장애인 채용박람회 등 개최

-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인 9월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시작으로 『제22회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광복60주년기념 한·중·일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움』, 『지역별 정신지체인 기능경진대회』, 『장애인채용박람회』 등이 개최된다.

□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9월 6일(화) 오후 3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 김대환 노동부장관,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장애인근로자 및 그 가족, 사업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업주 및 업무유공자, 직장생활에 모범을 보인 근로장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부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주요 수상자 공적>

성명	소속(직급)	훈격	공적개요
최인재 (남,74세, 지체3급)	삼령산업(주) (대표이사)	석탑 산업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채용에 대한 관리자와 현장근로자들의 반대를 설득하여 현재 장애인고용률 21% 달성 • 장애인근로자들의 직무배치 배려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박윤서 (남,57세, 지체1급)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서울보훈 병원(소장)	산업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구제작의 선진기술을 익혀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선진 보장구 보급 등
안종규 (남,49세)	CJ Telenix(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에 장애인재택상담원 57명을 중증 장애인 위주로 신규 고용하여 4.26%의 장애인고용률 달성 등
이동휘 (남,54세, 청각2급)	금강(주)(사원)	대통령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한 근무자세로 사내 구두불량률 0%화에 기여,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
이인원 (남,58세)	롯데쇼핑(주)(대표 이사)	국무총리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확대를 경영지표로 설정하여 장애인고용을 꾸준히 증가시킴
송호근 (남,53세)	(주)와이지원	국무총리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으로 단위 공장별 장애인고용 의무 인원을 배정하여 적극적으로 채용
오영미 (여,33세, 정신지체3급)	맥도날드(사원)	노동부장 관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직업재활에 성공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환경미화직에서 1년후 주방 PC 직무를 부여받음

- 9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는 『제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서울광장·올림픽제2체육관·올림픽공원 수변무대 등에서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열리게 된다.
- 장애인 기능향상을 촉진하고 장애인 기능인력의 저변확대 및 장애인 능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이번 대회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범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기획하여, 서울광장에서 개회식 거행
 - 개회식후 공개행사는 서울광장에서 음악전문 케이블 방송사 KM TV에서 유명가수 등이 출연하는 음악공연을 실시
 - 9월 14일(수)에는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홍보대사인 인기그룹 ‘버즈’의 공연 등이 열리게 된다.
- 광복6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일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단체장, 장애인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 『한·중·일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움』은 9월 14일(수)에서 15일(목) 양일간 올림픽파크텔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한편,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별 정신지체인 기능경진대회’, ‘장애인채용박람회’ 등의 지역단위 행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붙임 :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주요행사 세부내용1부

<붙임>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주요행사 세부내용

2005. 9. 1

노 동 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목 차

■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수상자 현황 및 장애인고용우수사례	
○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수상자 현황	7
○ 산업훈장 / 삼령산업(주) 대표이사 최인재	9
○ 산업포장 / 서울보훈병원 근로자 박윤서	11
○ 대통령표창 / CJ Telenix 대표이사 안중규	12
○ 대통령표창 / 금강(주) 근로자 이동휘	14
○ 국무총리표창 /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이인원	16
○ 국무총리표창 / (주)와이지-원 대표이사 송호근	18
○ 노동부장관표창 / 맥도날드 근로자 오영미	19

■ 기능경연과 화합의 축제

○ 제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2
--------------------------	----

■ 한·중·일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

○ Beyond Ability, Beyond Asia	25
-------------------------------------	----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장애인고용촉진유공자 시상

▶ 대외협력실장 황보익 / TEL : 031-728-7026 FAX : 031-728-7037

-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관하는 「2005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9. 6(화)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그리고 취업지원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과 부대행사를 갖는다.
- 이번 대회는 노동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등 내빈과 사업주, 장애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고용 유공자 표창 및 모범사례 발표,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촉진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된다. 사회는 KBS 이지연 아나운서가 맡는다.
- 올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광주광역시 삼령산업(주) 최인재 대표이사(남,74세, 지체3급)는 본인 역시 왼손손목이 절단된 지체3급 장애인이면서 장애인고용을 21%를 달성하고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 이밖에도 한국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박윤서 소장(남,57세,지체1급)이 양질의 선진보장구 보급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훈장을 수상하며, 최근 콜센터 채택 상담원 57명을 중증장애인 위주로 고용하여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파급효과에 크게 기여한 CJ텔레닉스 안중규 대표이사(남,49세)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 붙 임 1.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수상자 현황 1부.
2.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1부.

<붙임 1>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수상자 현황

□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수상자 현황

1. 정부포상 (산업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 2, 국무총리 2, 노동부장관 23)

훈격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산업훈장	삼령산업(주)	대표이사	최인재(남,74세,지체3급)	사업주
산업포장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소장	박윤서(남,57세,지체1급)	근로자
대통령표창	CJ Telenix 금강(주)	대표이사	안중규(남,49세)	사업주
		사원	이동휘(남,54세,청각2급)	근로자
국무총리 표창	롯데쇼핑(주) (주)와이지-원	대표이사	이인원(남,58세)	사업주
		대표이사	송호근(남,53세)	
노동부장관 표창	한국관광공사 (주)JVM 박사금형 태성금속 (주)한독음향	사장 대표이사 대표 대표 대표이사	김종민(남,56세) 김준호(남,58세) 추호길(남,41세) 하영숙(여,51세) 박복자(여,59세)	사업주
	(유)남미전기 카오닉스 제일산업 경상남도 창원도서관 맥도날드	과장 사원 사원 지방사서주사보 사원	김대경(남,39세,지체3급) 전제삼(남,34세,지체2급) 이경미(여,24세,뇌병변2급) 박숙희(여,40세,지체2급) 오영미(여,33세,정지3급)	근로자
	대우자동차판매(주) 초정노인전문병원 (주)럭키산업	과장 간호과장 부장	임형준(남,38세) 남미숙(여,43세) 정상순(남,42세)	사업체 인사담당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충주성심학교 부산시 금정구 정신보건센터	지방행정주사보 사원 전임상담원 교사 팀장	김선주(여,35세) 김범규(남,33세) 심은미(여,42세) 이연태(남,42세) 김미영(여,29세)	취업지원 유공자
	한국방송공사 (주)커리어다음 장애인생활신문사	프로듀서 대표이사 대표	양원석(남,49세) 홍성훈(남,56세) 조병호(남,49세)	사회인식개선 등 유공자
	노동부장관 상장	작품현상공모 인쇄매체광고부문 최우수상 작품현상공모 수기부문 최우수상	안전태(남,23세) 백주희(여,20세) 유정호(남,34세)	제 14 회 작품현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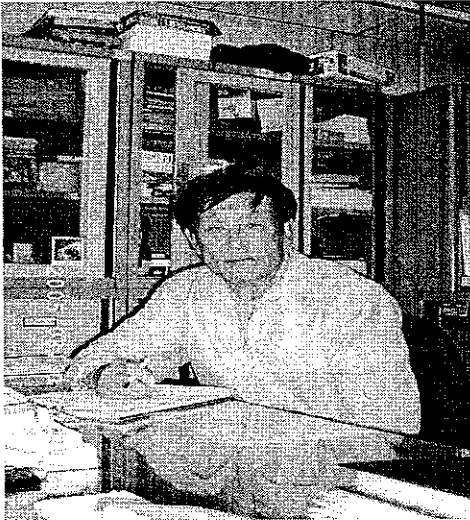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표창(이사장감사패 6, 이사장표창 12)

훈 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이사장 감사패	(주)현장종합관리	대표이사	박현장(남,50세)	사업주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박성규(남,57세)	
	대신용역(주)	대표이사	이희관(남,57세)	
	광주인탑스(주)	대표이사	김형태(남,44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박종권(남,68세)	
	이케이맨파워(주)	대표이사	김동규(남,46세)	
이사장 표창	한국공항공사	대 리	이택환(남,44세,지체2급)	근로자
	대한광업진흥공사	주 임	신해섭(남,40세,지체2급)	
	(주)IBS인더스트리	사 원	고진균(남,40세,지체2급)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서기	김갑순(남,41세,지체4급)	
	대림기업(주)	대 리	윤현우(남,32세)	사업체 인사담당
	인탑스(주) 구미공장	대 리	김연환(남,36세)	
	(사북)성춘재단 굿프랜드	원 장	정성기(남,39세)	취업지원 유공자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	센 터 장	김휘경(남,36세)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사 원	김민정(여,25세)		
(사)부산복지21총봉사회	지 회 장	하오자(여,49세)	사회인식개선 등 유공자	
목포한국병원	재활의학과장	선광진(남,43세)		
정신장애인 부모		김성범(남,64세)		

<붙임2>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우수사례 1.

석탑산업훈장 / 삼령산업(주) 대표이사 최인재(남,74세)



광주광역시 하남공단 9번 도로에 위치한 삼령산업(주)는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장애인 고용이 차츰차츰 늘어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대비 21%(10명/47명)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율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3년도부터 수화통역사를 선임하여 청각장애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장애인근로자의 입사 후 적응을 돕기 위하여

수습기간 3개월동안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알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장애특성과 적성에 맞는 작업공정을 파악하여 직무에 배치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최인재 대표이사는 1990년도 당시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 납품업체에 납기일내 납품이 어려워지자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계로 왼손 손목이 절단되는(지체장애,3급)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단순히 장애인만 많이 고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회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와 같은 마음이 되어 직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령산업(주)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향상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 월 3만원 더 많은 급여를 책정·지급하는 등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타 기업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들의 인적가치를 삼령산업(주)의 최인재 대표이사는 미리부터 깨닫고 차츰차츰 장애인 고용을 높여 갔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 장애인 근로자들은 회사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인재 대표이사의 지원과 장애인들의 회사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현재의 삼령산업(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거래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적극 권유하여 4개 업체에서 40명 이상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 등 장애인고용을 다른 회사에도 전파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삼령산업(주)의 최인재 대표이사는 향후에도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근로자들이 단순히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소외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건강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포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박윤서 소장(남,57세,지체1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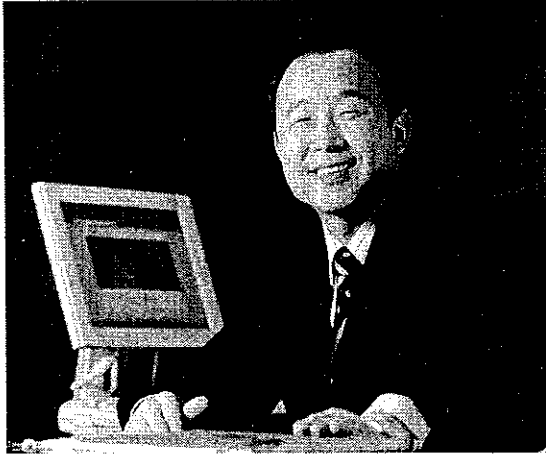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윤서 소장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재학 당시 해병대에 지원하였다가 월남전에 참전, 두 다리를 모두 잃은 1급 장애인이다.

본인이 의족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보장구 분야의 개선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미국 뉴욕대학교 의지 보조기학과에 유학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선진이론과 첨단 기술을 습득하였다.

귀국 후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의지기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보장구지원에 열정을 쏟아온 그는 현재 국내 장애인용 보장구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세계 첨단 보장구 제작공급사인 독일 '오토복'사와 1995년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선진 골격식 의수족 제작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1999년부터는 세계적 보청기 제작사인 미국 '스타키'사의 보청기 기술을 전수받아 청각장애 국가유공자들의 장애극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1997년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보장구분야 팀장으로 참여하여 의지 보조기 기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내 일부 대학에 의료보장구학과 설치를 주도하여 국내 보장구제작여건 제고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도입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KS규격을 추진하는 등 보장구 분야의 각종 제도 및 체계 구축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해 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된 그는 "그저 나의 필요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겸손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 표창 / CJ텔레닉스 대표이사 안중규(남,49세)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CJ텔레닉스는 (주)CJ홈쇼핑 등을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선두업체이다. (주)CJ텔레닉스는 2003년 상시근로자 월평균 1,629명, 장애인 근로자 1명, 장애인 고용률 0.06% 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162,564천원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나, 2005년 5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고용개발팀의 장애인 고용관련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재택센터를 구축

하기로 결정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장애인 재택상담원 57명을 신규고용하였다. 이로 인해, 2005년 6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1,386명 장애인근로자 총 59명, 장애인 고용률 4.26%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사업체에서 장려금 사업체로 전환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장애인이 채용된 사례로, 다른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파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재택상담원 업무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2차로 2005년 9월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재택상담원을 30명 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지역의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지면 현재 장애인 고용률 4.26%에서 6.13%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

(주)CJ텔레닉스는 2005년 연초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제안 및 협의되었던 사항들 첫째, 능력은 있으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출퇴근 근무방식을 재택근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둘째, 모집시 지원하는 장애인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성별제한을 없애고 연령대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 자격조건을 완화할 것 셋째, 기존 대기업의 구인수요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근무환경 조건의 강화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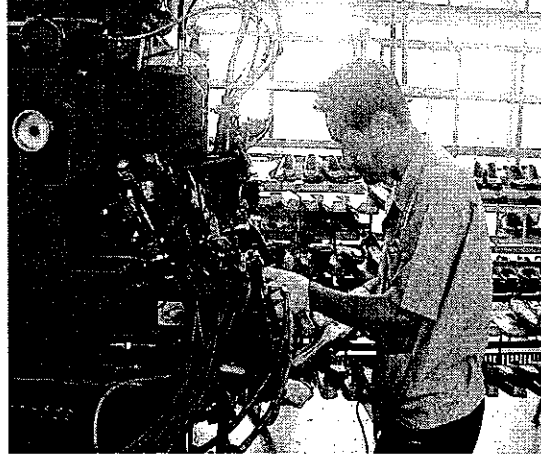
때마침 CJ그룹 내 분위기도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

제하여 장애인 고용관련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었고, (주)CJ텔레닉스의 안중규 대표이사는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상담원 재택센터 제도의 필요성과 재택센터에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였다. 이러한 장애인 재택센터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과 2005년 강화된 부담금제도로 인한 비용적 측면, 또한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수도권 지역 장애인 재택상담원 57명 신규고용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냈다. 실제 임금수준도 1년차 월 132만원, 2년차 151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년 계약직 근무 후 근무성적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등 장애인 고용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수도권지역 채용과정은 2005.5.2~5.18(17일간) 공단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328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에서 162명이 통과, 2005.5.24~26(3일간)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 57명이 신규 고용되었다. 신규 고용된 장애인 57명 중에는 뇌병변 장애인 1명, 시각장애인 3명, 신장장애인 5명이 포함되어 기존 지체장애인 위주의 채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애유형의 채용사례가 생겼다는 사실과 채용된 장애인의 75%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점이다. 특히 신장장애인 중에는 주3회 혈액투석을 하는 장애인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기업의 채용시 소외되어 온 혈액투석 장애인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주)CJ텔레닉스에서는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해 본사에 “창의의 방”이라는 장애인 재택센터 상황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10명당 1명의 전담 슈퍼바이저를 선임하였고, 이들 슈퍼바이저 및 장애인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매니저 1명을 배치하였으며, 재택센터 장애인들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담 전산직원 2명 등 총8명의 전담 인력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비장애인의 경우도 이직이 심하다는 전화상담 직종에서 신규고용된 장애인 재택상담원이 한명의 이직자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어 더욱 타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통령 표창 / 금강(주) 부평공장 이동휘(남,54세,청각2급)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번이나 강산이 변하도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금강(주) 부평공장의 조립남화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이동휘(55,남,청각장애 2급)씨가 그 주인공. 이씨는 1972년 10월 금강(주)에 입사하여 33년간 구두제조 전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공정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씨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회사의 배려가 가장 컸다. 다른 회사에 근무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회사 분위기가 좋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면서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두곤 하여 경력이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금강(주)는 구두제조 회사로 30년 전부터 손기술과 집중력이 뛰어난 청각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해 청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부평공장에는 22명의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동휘씨의 노력이 컸다고 한다. 그는 청각 2급의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입사 초기부터 회사 내 동료직원 및 상사로부터 성실한 근무태도와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왔으며 금강(주) 부평공장 내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초기 멤버로 농아인모임을 결성해 청각장애인 후배 근로자들의 직
장적응을 돕고 회사 구조조정 시에도 청각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현재는 모임 회장직도 맡고 있다. 또한 그는 청각장애인 직원
야우회를 계획해 회사의 지원을 받아가며 청각장애인의 근무의욕 고취 및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씨는 성실한 회사 생활 외에도 틈틈이 (사)인천농아인협회에서 3년간 갑
사로 재직하면서 청각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한 가정의 가
장으로서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무남독녀 외동딸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가
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존경받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제 정년이 4년 남아있는 그의 소망은 청각장애인 동료의 모범이 되고 누
구에게나 인정받으며 직장을 떠나는 것이라며, 퇴임 이후에는 농아인협회에
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
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 / 롯데쇼핑(주) 대표이사 이인원(남,58세)

‘언제나 고객과 함께’ 라는 경영이념으로 전국 2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은 연간매출(‘04년 기준) 8조원의 백화점업계 1위의 초일류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에도 강한 의지를 반영하면서 ‘03년 8명, ‘04년 75명에 이어 ‘05년 8월 현재 123명을 고용하면서 급격한 장애인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서비스업이라는 업태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문적인 직무 분석을 받고 난 후 고객 대면 서비스 직무와 전문 직무를 구분하고, 장애인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장애인 고용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력 수급의 효과와 함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절감이라는 부가효과를 가지며, 장애인 역시 경제 활동 기회획득 및 역할 수행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만족감 고취라는 양자간의 성장 및 발전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2004년부터 롯데쇼핑은 백화점 각점 운영목표에 장애인 고용현황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 개선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추진해 왔으며 월별, 반기별 평가를 통해 장애인 채용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전국 22개 각 지점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국 각 지사와 긴밀하게 연계, 협의하여 채용 소요 발생시 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롯데쇼핑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특히 공단의 직무분석 평가결과를 통해 현재의 전화교환 및 주차정산 등의 직무 외에 POP(매장 광고) 제작 업무 등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능력을 적용할 계획이며 또한 당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공단측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인력 수급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필요 인원을 수급하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 공동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롯데쇼핑은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무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이러한 만족도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즐거운 직장 분위기 형성으로 이어져 조직 전체가 생동감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고용 확대 이후 롯데백화점은 대내외적 이미지가 상당히 향상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란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시혜적 또는 강제적 정책 구상과 이에 대한 기업의 희생적 정책 실천이라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장애인이 모두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자간 WIN-WIN 전략의 구현임에 틀림없다.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롯데백화점 이인원 대표이사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윤리경영의 확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와 기업, 그리고 장애인이 모두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힘찬 포부를 밝힌다.

국무총리 표창 / (주)와이지-원 대표 송호근(남,53세)

산업용 드릴 부문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제1위이자 세계시장 점유율 5위의 수출업체인 (주)와이지-원(대표 송호근,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은 요즘 장애인 고용분야에서도 앞장 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업체였지만 장애인을 6명밖에 고용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을 1%에 못 미쳤던 장애인고용율을 단숨에 의무고용율인 2%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성과 뒤에는 회사 대표인 송호근씨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천여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05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가 인천 남동구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2005 상반기 구인구직자만남의날' 행사에 참여했으며, 면접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5명을 채용하는 등 장애인근로자 수를 12명까지 확충함으로써 장애인고용율 2%를 달성한 것이다.

또 회사에 입사한 장애인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급여 지급시 장애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씩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월례조회나 간부회의시 수시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장애인고용 확대를 지시함으로써 신규인력 채용시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정도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분위기가 회사 전체에 확산되어 있다.

와이지-원은 장애인고용에 있어 문제점 중의 하나인 비장애인과 의 화합을 위해 공단 인천지사와 협조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노무 담당자의 체계적인 고용관리 기법 습득을 위해 올 하반기에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81년 양지원공구로 설립되어 99년 와이지-원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지난해 7월 본사를 신축해 청천동에 위치한 신축 공장으로 이전해 한단계 성장한 와이지-원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반자로 장애인고용을 선택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장관 표창 / 맥도날드 오영미(여, 33세, 정신지체 3급)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총장로지점에 근무하는 오영미씨는 인간에게 있어 노력과 의지 그리고 주위의 관심과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장애아라는 이유로 어린시절 부모와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보호시설에서 성장해야 했던 오영미씨는 1990년 18세의 나이에 귀일정신요양원에 입소하였다. 입소당시에는 힘든 상황과 주위의 외면 속에 살아온 그녀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으로 외부환경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다.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그는 한글은 물론 숫자조차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내 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움의 길이 열렸고, 1998년부터 2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한글도 깨우칠 수 있었다. 오영미씨는 “2년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포기하려는 약한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곁에는 항상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때마다 큰 힘을 얻곤 했지요”라며 고마운 주위분들에 대한 인사를 챙길줄도 안다.

한글을 깨우친 오영미씨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고, 활동하고 싶은 바람이 생겼다. 그리하여 제과제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빠른 손놀림과 제빵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숙함 또한 배울 수 있었고 원내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인 사회기술훈련에 참여하여 마트, 병원, 교회, 약국, 은행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현장실습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의 체계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오영미씨는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숙한 사회인의 성장한다. 직업재활에 대한 열정의 결과로 2002년 5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의 취업알선·지원고용을 통해 맥도날드 환경미화

직에 입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화장실청소, 매장 내 환경 등의 청소를 하는 업무를 부여받았다

취업 후 간질증상으로 인하여 몸이 많이 허약하지만 항상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하여 매장 내·외 청소와 환기로 오픈을 준비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으며 하루도 출근을 거르지 않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점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주방PC(햄버거나 고기 굽는 직무) 일까지 거뜬히 수행하고 있다. 맥도날드 담당 매니저는 “오영미씨는 언제나 밝은 모습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인다. 때문에 직원들과 친분도 두텁고 신뢰가 깊어 언니로서 상담가의 역할도 해 주고 업무수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모든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칭찬한다.

“맥도날드는 제 직장이자 친구입니다. 장애는 죄가 아니에요.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들에게도 꿈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오영미씨의 말이다.

기능경연과 화합의 축제

“제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사회와 기업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지는 범국민적 행사로 발돋움 -

▶ 능력개발부장 양해철 / TEL : 031-728-7059 FAX : 031-728-7089

○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시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참가선수에게는 직업재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13(화)부터 9.16(금)까지 4일간 열린다.

- 뜻 깊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속에 치러지던 기존 대회와는 달리 역대 최초로 서울에서, 그것도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악마와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펼친다.

○ 본격적인 기능경기대회는 올림픽제2체육관(펜싱경기장)등 3곳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24개 정규직종 및 영어번역 등 6개 시범직종에서 열띤 경합이 이뤄지는 동시에 구축회화, 한지공예, 비즈공예, 바둑 등 4개 직종의 **문화경연대회**도 구성되어 장애인들의 문화적 기량도 겨룬다.

-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는 인기그룹 ‘버즈’ 콘서트, 전국장애인장기자랑 본선 등의 흥겹고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정신지체인기능경기대회**도 함께 개최한다. 또한 9.14(수)~15(목) 이틀간 올림픽파크텔에서는 **광복 60주년기념 한·중·일 장애인고용심포지엄**도 열린다.

○ 본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 관계자는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히면서 선진복지국가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붙 임 : 제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행사개요 1부.

<붙임> : 제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행사개요

□ 제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행사개요

- ◇ 기 간 : 9.13(화) ~ 9.16(금)
- ◇ 장 소 : 서울광장 · 올림픽제2체육관 · 올림픽공원 수변무대 등
- ◇ 주 최 : 노동부
- ◇ 주 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후 원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KBS
- ◇ 공식협찬사 : KT, KTF
- ◇ 문 의 : 031-728-7058~9
- ◇ 행사일정

행사명	일정	장소	내용
개회식	9.13(화) 18:00	서울광장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KM TV 특집 공개방송	9.13(화) 19:00~20:30	"	유명가수 축하공연
기능경기대회	9.14(수) ~ 9.15(목) 09:00~18:00	올림픽제2체육관 (펜싱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대회(컴퓨터프로그래밍 등 24개 직종) ◆ 문화경연(바둑 등 4개 직종) ◆ 수도권정신지체인기능경진대회 (외식 등 5개 직종)
		고용개발원(분당)	양복, 양장, 한복 등 3개 직종
		일산직업능력 개발센터(일산)	CNC선반 등 3개 직종
문화공연	9.14(수) 20:00~22:00	올림픽공원 수변무대	그룹 '버즈' 콘서트
	9.15(목) 20:00~22:00		전국장애인장기자랑대회 본선
광복60주년기념 한·중·일 장애인고용 심포지엄	9.14(수) ~ 9.15(목) 09:00~18:00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차 :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파트너쉽-장애인고용 ◆2일차 : 화합과 공존의 동북아-장애인복지
시상식	9.16(금) 11:00~12:00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광복 60주년 기념

한·중·일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

- Beyond Ability, Beyond Asia -

▶ 연구실장 장창엽 / TEL : 031-728-7150 FAX : 031-728-7104

-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은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역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중·일 3개국간의 장애인고용과 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2005년 9.14(수) ~ 9.15(목) 이틀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 중에 '한국사회학회' 등 유수의 전문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15개 학술 심포지엄 중 하나로 복지 분야에서는 유일한 기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일본과의 장애인 정책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방안을 고찰하게 된다. 또한 'Beyond Ability, Beyond Asia'라는 슬로건을 걸고 향후 동북아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와 함께 서구의 장애인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심포지엄 첫째 날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자 한국 장애인복지의 원로인 차홍봉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이 「동북아시아시대와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한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파트너쉽·장애인 고용"이라는 주제로 한중일의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및 동북아 산업과 장애인 신고용직종의 창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 이튿날은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와 자립생활운동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은 향후 한·중·일이 장애인 복지와 고용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상진 광복 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정부인사들이 초청될 예정이며 제 2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어 장애인의 종합적인 축제로 승화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미술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장애인이 바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애인고용 60년사 기념집 배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붙 임 : 한·중·일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 내용 1부. 끝.

<붙임> : 한·중·일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 내용

□ 한·중·일 장애인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 “Beyond Ability, Beyond Asia”

1. 일 시 : 2005. 9월 14일(수) ~ 9월 15일(목) 13:00-18:00

2. 장 소 :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13:00	개회사 :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13:10	축사 1 : 김대환 노동부 장관
13:20	축사 2 : 한상진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13:40	축사 3 : 후미오 기무라 일본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회장대행
13:50-14:20	기조강연 「동북아 시대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새로운 비전」 차홍봉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제 1일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파트너십 - 장애인 고용”
14:20 - 16:20	○ 한·중·일 장애인 경제활동 비교 좌 장 : 강순희 중앙고용정보원장 주제발표 1 :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소장 주제발표 2 : 마츠이 료스케, 일본 호세이 대학 사회정책학과 교수 주제발표 3 : Wang Yadong, 중국 노동부 훈련 및 고용국 부국장
16:20 - 16:30	휴 식
16:30 - 18:30	○ 동북아 산업과 장애인 신 고용직종의 창출 좌 장 : 김종인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주제발표 1 :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관리부장 주제발표 2 : 우에다 히데노리, 일본 JEED 직업재활부장 주제발표 3 : Liu Zheng, 중국장애인연합회 Gansu 지사 대외협력부장
18:30 - 20:00	리 셉 션
제2일	“와합과 공존의 동북아 - 장애인 복지”
13:00-15:00	○ 복지국가의 완성 - 장애인 연금제도 좌 장 :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 주제발표 1 :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주제발표 2 : 나카지마 가즈오,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 보건복지학부 교수 주제발표 3 : Wang Ping, 중국 내무부 사회복지국 부국장
15:00-16:30	○ 장애는 나의 힘 -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좌 장 : 김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1 :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회장 주제발표 2 : 노구치 도시히로, 일본 다찌가와 자립생활 센터 이사 주제발표 3 : 박찬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공동대표
16:30-16:40	휴 식
16:40-18:30	○ 21세기를 주도할 동북아 장애인 고용·복지정책 - 한·중·일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좌 장 :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1 : 김형식 한국복지산업이사장 주제발표 2 : 마츠이 료스케, 일본 호세이 대학 사회정책학과 교수 주제발표 3 : Qian Pengjiang, 중국장애인연합회 고용 및 교육국 부국장